

생명의 말씀

선택 신앙

신 7:1-5



김영식 목사

· 전라지방회장
· 순복음장신교회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어떤 신앙이든지 선택할 수 있음을 보장하지만, 사탄과 마귀들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입을 막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멸망이 주는 교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되었을 때, 그 땅 거민들과 결혼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적 관계를 맺는 것을 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런 인종관계를 통해서 타락한 우상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우상숭배는 우상을 섬기는 것뿐 아니라 그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시”(신 7:1) 주안에 있으면 거룩한 삶이 되겠지만, 주를 떠남과 동시에 우상을 접하게 되면 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인들의 극렬한 죄악에 대해 심판의 칼을 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신 7:2)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패전하여 쫓겨나가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할 땅을 얻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복을 통해 또 다른 살리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는 징벌에 대해 쓸데없는 동정을 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경건히 섬기고 순배하는 거룩한 종족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임은 기도의 모임이고, 주의 은혜를 향수 있게 하고 주의 사랑을 떠나지 않는 생활을 했으며,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후손들과 섞여 살다 보니 셋의 후손은 종교적 행위가 무가력해지고, 경건 생활의 풍도가 쇠퇴하여 셋의 자손들은 타 족속의 유혹에 스스로를 절제하지 않고 몸을 내어 맡겨 다른 종족과 혼합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컫는 셋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로 표현된 가나안 딸들의 아름다움과 유혹에 넘어가 그들이 채놓은 그늘에 걸려 자

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모임은 사라졌고, 결국 물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멸망은 아무런 예고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전에 예고가 있는 다음에 하늘에서 유행과 불이 비같이 내려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 멸망을 통하여 그 땅을 더럽힌 죄는 완전히 씻어졌으며, 이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도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에게는 축복된 생활이었지만, 가나안 족속에게는 자신들을 돌이켜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가나안 인물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였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습관적이고 사악한 행위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파멸은 그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을 빼앗아 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참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습니까? 전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만일 식량이 없거나 질병으로 죽어갔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그 죽음을 바알신이 화를 냈기 때

문에 일어난 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하여 병자가 계곡에 내동댕이쳐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도시가 초토화 되는 일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여호와를 모든 신중의 신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죄의 세력을 멀리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더불어 많은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이 잘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약점을 갖고 있으므로 자주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유혹으로 인한 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철저히 진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가 악인의 꾀에 빠져 그들과 회교가 되어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죄에 빠지지 못하도록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땅에 같이 하지 말라”(고후 6:14)

유대 율법에서는 소와 나귀를 같은 땅에 매는 것을 금지시켜 왔는데(신 22:10) 그것은 두 짐승의 체격과 힘이 달라서 힘이 약한 짐승에게 고통을 안겨 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불신자와 어울리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내왕이나 교제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고전 15:10) 그들이 거리낌 없이 행하는 음행, 탐욕, 호색, 우상 숭배 등을 따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으로 자녀가 생겨서 그 아이들이 영생을 얻는데 지장을 받는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영생의 문제에 관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우리는 큰 화를 당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과 계속 교제하는 일은 삼가야 하며,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과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신원하지도 말고 존경하지도 말며, 그들에 대해 호감을 갖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과 그들은 근본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재물을 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 제재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보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며, 언약을 이행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

하는 측면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라, 법원은 사법부 최고 기관이 마련한 대법원의 지침과 “가족관계법”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고 본다.

분명히 법의 규정이 있는데도, 법관 개인이 자기 소신을 내세워, 이렇듯 황당한 판결을 한다면, 왜 전문적인 법률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

법률은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기준과 기본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판사들이 자기 소신대로 법률(法)을 휘두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또 큰 이슈에 대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여성이 남성으로 성 전환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까지 한 사람이, 임신(產卵)이 임신한 것임) 했다고 한다. 이는 사회적/정치적 질서를 깨고,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성별 정정을 해 주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동정

임하석 목사 차남 화축



예하석 교단 총무를 역임한 임하석 목사(주성교회) 차남 승일이 오는 3월 4일(토) 낮 12시 30분 신부 한기위양과 결혼예식을 거행한다. 믿음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한 가정이 탄생하는 지리에 많은 분들의 축복을 기대한다. 결혼예식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사이넬스톤 2층 로즈홀에서 거행된다. 연락처 0103733-2069

에스라 성경학원 4대 총장, 이철



학교법인 에스라 성경학원(이사장 백정만)은 제4대 총장으로 이철 전 남서울교회 목사를 선임하고 지난 2월 27일(월) 학교 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에스라 성경대학원대학교는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으며 현재 80여 명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한국해비타트 캠페인 공모



주거 복지 전문 NGO 한국해비타트(상임대표 송영태)가 우리 동네, 우리 학교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쓰리고’ 공모전을

진행한다. ‘쓰리고’ 캠페인은 자신의 동네 또는 학교 환경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하는 참여형 활동으로,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기존 봉사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환경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모테트합창단 정기연주회



서울모테트합창단(지휘 박지연)은 3월 21일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제105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노년의 시기를 보내며 작곡한 Psalm 51 BWV1083과, 20대의 시절에 작곡한 Cantata BWV21로 구성되어, 시대를 초월하는 신앙심과 음악성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법원의 법 적용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 성 전환자라도 성별 정정 허가는 신중해야 한다 -

지난 2월 16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 이하, 영동지원)에서는 성전환자가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별을 정정해 주는 사건이 벌어져, 우리나라 법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영동지원에서는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한 모 씨에 대하여, ‘성 정체성이 여성성이 강하며, 외부 성기 수술을 마치지 않았어도 여성의 신체를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성별 정정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또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확인

하는 데 있어, 외부 성기 성형수술은 필수적이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2006년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2004스42)에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지침”에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함에 있어, ‘성염색체, 성선(性腺), 외부 성기 등 3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에 불일치가 존재하여 성보완 수술 또는 성 적합 수술을 받은 사람이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전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다른 성의 외부 성기 성형수술까지 받지 않았

다면, 성별 정정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2015년에 개정된 ‘가족관계등록예규’의 ‘성별정정허가신청서 기재 지침’에도 ‘성전환 수술과 외부 성기를 반대의 성으로 바꾼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매우 중시해 온 것이다.

그런데 영동지원이 이런 것을 무시하고, 성별 정정을 원하는, 개인의 입정만을 고려하여, 성별 정정을 해 준 것은, 여러 가지로 혼란의 소지가 크다.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하여도 생물학적 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성정(性徵)과 성 주체성이 달라서 다른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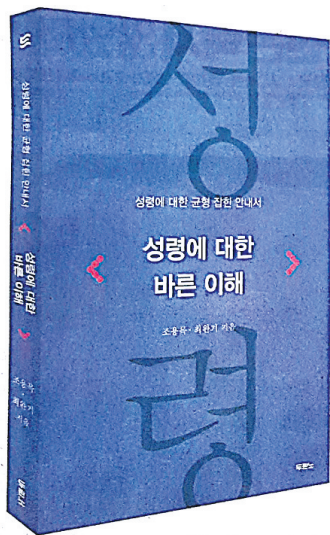
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생 호르몬 요법을 행해야 하고, 외부적 수술까지 받지만,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바뀐 성의 삶을 살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 이번의 경우처럼, 외부 성기에 대한 성형수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성별정정’을 해 주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렇다면, 본래의 남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신은 ‘여성’의 성을 가졌다고 하여,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당함을 겪겠는가?

법원이 한 개인이 겪는 어려움을 배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번져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임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 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자 조용목 목사 |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써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 하나님의교회 실행위원이다.
저자 최완기 목사 |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